

기아車 美 금융위기 '직격탄'

자동차 시장 침체 ... 9월 수출 전년 대비 37% 감소

광주·전남 지역경제 '떡구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에까지 확산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광주 제조업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은 1만1천874대에 그쳐 전년 동기 1만6천300대에 비해 37.1%나 감소했다.

올해 광주공장의 월별 수출실적(선적기준)은 1월 1만5천954대, 2월 1만3천677대, 3월 2만1천87대, 4월 2만2천467대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5월 2만102대, 6월 1만6천807대, 7월 1만4천185대, 8월 1만4천220대, 9월 1만1천874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9월까지 수출누계는 15만373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만5천271대의 90%에 불과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출 물량은 지난해 23만281대(전체 생산량 34만5천600대의 67%)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북미 자동차 시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2000년 사상 최대 규모인 1천740만대 판매를 기록한 이후 2006년까지 1천700만대를 줄곧 넘겼으나, 올 상반기는 741만4

천대 판매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824만8천694대)에 비해 10.1%나 줄어든 것이다.

소형차를 앞세운 한국 업체가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상반기 미국내 판매대수는 작년보다 0.6% 감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등의 경기 침체는 수출 차질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른바 밸류가(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차)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 소형차 마케팅 등을 강화하면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K협력업체 대표는 "미국발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경우 기아차의 수출 감소로 인해 부품 납품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기아차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이같은 위기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아차는 지난 9월 내수시장에서 2만4천332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수치다.



“반갑다 비야” 가을 가뭄이 심각한 광주·전남지역에 22일 단비가 내렸다. 단비 속에 우산을 받쳐 든 어린 학생들이 광주시 동구 용산동 화훼 단지에서 국화 등 가을 꽃을 구경하고 있다.

광주·전남 주공 임대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불황에 서민 고통

장기 불황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료 연체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주공 임대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할 만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서민 가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2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가구 수는 9천533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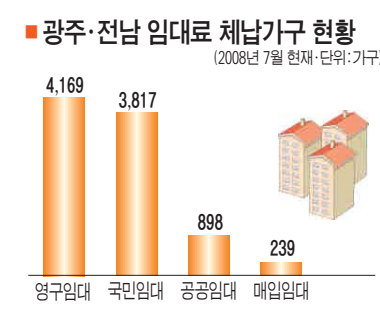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체납 가구(8천961호)에 비해 6.4%(572호) 늘어난 것으로,

전체 임대아파트(4만52호)의 23.8%에 이른다. 임대주택 입주자 4명 가운데 1명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 지역 7월 현재 전체 임대주택(2만6천186호) 가운데 23.8%(6천223호)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전남도 임대료 체납 가구가 3천310호에 달하면서 전체 임대주택(1만3천866호)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광주·전남의 임대료 체납액은 총 17억9천662만원으로, 전체 임대료(236억4천846만원)의 7.6%에 달한다.

특히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률이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영구 임대주택(1만5천421호)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 수는 27%(4천169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입주 5년 이후 분양 전환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연체율(19%)에 비해 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불황으로 인한 고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주공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불황의 여파로 돈을 내지 못하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무원 208명 직불금 신고

내달 10일부터 國調

공무원의 쌀 직불금 자진 신고 접수 사흘째인 22일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에서는 모두 208명의 공무원이 신고를 했다. <관련기사 2·3면>

그러나 행안부가 이날 자진 신고 지침을 수정 시달하고 신고 기한을 27일로 연장하면서 지자체 감사부서에 문의전화도 쇄도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이날까지 경찰 45명을 포함해 149명이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구청로 돈을 내지 못하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직불금을 수령했고, 나머지는 모두 직계가족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에서는 도 분청과 일선 시·군을 합쳐 모두 59명이 신고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도 분청 41명, 광양 8명, 신안 7명, 영암 2명, 화순 1명 등이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공무원은 1명, 나머지는 가족 수령자였다.

정부는 오는 12월20일부터 부당 수령액 환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쌀 소득보조 직불금' 국경조사를 다음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알림

지하철 역에서 만나는 미술 꿈나무들의 작품

제53회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

10월 24일부터 연말까지 광주지하철 금남로 4구역

지난 5월 열린 광주일보사 주최 제53회 호남예술제 미술부문 입상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지역에서 사민 여러분을 만나다.)

문화수도 광주를 아낌없이 갈채해주시는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를 열실 예정이다.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으로 지은 어린이들의 작품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비밀 전시회는 미술 꿈나무들에게 시민들의 예술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전시처: 호·중·고동부 회고상·금상·은상 수상작 489점
- 유서부 우수상·금상·은상 수상작 321점
- 장: 호·중·고동부 회고상·금상·은상 수상작 321점
- 기 간: 10월 24일 ~ 12월 31일
- 문: 회: (062)220-0541
- 주 최: 광주일보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